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6. 26.(금)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2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 제30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제30차 서면회의 결과,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서면회의 결과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 (2015-31-14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헌 행정법무담당관 보고해 주십시오.

○ 이헌 행정법무담당관

-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함),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함)의 이사 등 임원 선임계획을 <붙임 1>과 같이 정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46조제3항에 의한 KBS 이사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방문진 이사·감사 임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제13조제2항에 의한 EBS 사장·감사·이사 임명을 위한 선임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선임대상 임원입니다. KBS는 이사 11명, 방문진 이사 9명, 방문진 감사 1명, EBS 사장 1명, EBS 이사 9명, EBS 감사 1명입니다. 참고로 KBS 감사는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다음은 KBS·방문진 이사회 이사 선임 방안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방문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임 방안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안건이 떠 있기로는 계획에 관한 건을 가지고.... <붙임>으로 가서 봐야 합니까? 지금 <붙임>을 설명하고 계십니까?

○ 이현 행정법무담당관

- 예, <붙임>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계속 말씀하시지요.

○ 이현 행정법무담당관

- <붙임> 2페이지입니다. 선임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모집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공모방법에 대해 홈페이지 공지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접수기간은 14일간으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그리고 제출서류는 지원서, 결격사유 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등이며, 접수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 확보를 위해 자천 및 타천 방식으로 접수하되 KBS, 방문진 이사는 중복 응모를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며, 원활한 심사업무 등을 위해 타천의 경우 '피추천인과 협의 후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후보자 선정입니다.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며, 방송법 제48조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에 의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결격사유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의한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결격사유 확인 등이 끝나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심사는 서류전형의 하고 필요시 면접도 가능합니다. 후보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KBS 이사는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는 바로 임명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EBS 사장·이사 선임에 대한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EBS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선임 방안입니다. 먼저 후보자 모집은 절차적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자천·타천 방식으로 공개모집하되, 임기에 따라 이사는 8월 초순 이후, 사장은 10월 중순 이후에 각각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공모방식은 KBS·방문진의 이사 후보자 모집 절차를 따를 예정입니다. 후보자 선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의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데 심사절차는 마찬가지로 서류전형 후 필요시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통해 EBS 사장에 대해서는 임명동의하고, EBS 이사는 바로 임명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문진·EBS 감사 선임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방

문진 및 EBS 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으며, 선임 방안은, 공모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 상임위원 간 협의를 거쳐 의결을 통해 임명합니다. 감사의 업무 성격상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행정처리의 능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는 7월 초에 이사 후보자 공모를 하고, 공모가 끝나면 7월 중순에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를 1차 선정하고, 7월 말에 KBS 이사는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감사는 선임하게 됩니다. 추천된 이사는 8월 중순 정도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다음은 EBS 이사·감사·사장입니다. 8월 초순에 EBS 이사 후보자에 대해서 모집 공모를 하고, 이사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 작업을 거쳐서 9월 초에 EBS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게 되고, 사장에 대해서는 10월 중순부터 모집 공모, 그리고 결격사유 확인 및 후보자 선정을 거쳐서 11월 말에 EBS 사장에 대해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뒤의 <붙임>은 모집 공고문 등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으로 이사를 선임하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KBS 이사의 경우 저희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 방문진 이사는 저희들이 직접 임명하지 않습니까?

○ **이현 행정법무담당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사들의 3년 임기가 끝나면 그 이사회에 대한 평가를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인사권을 행사한 인사에 대해서 그 이사회가 그리고 이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송법에 보면 KBS 이사회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르면 MBC를 감독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MBC의 공적책임 실현,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사만 할 게 아니라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과연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그 이사들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부여한 이러한 소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평가가 필요한데..., 과거 이사회 선임 과정에서 공개적으로는 안 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평가들도 병행이 됐습니까?

○ **이현 행정법무담당관**

-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특히 MBC 방문진과 같은 경우는..., 지금 MBC의 여러 가지 경영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갈등 문제 등이 지금 계속해서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 MBC의 공적책임 실현에 책임 있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사실은 수수방관을 했습니다. 즉, 최고 경영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들이 다수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이사를 인선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인선하는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라도 먼저 전임 이사회, 그리고 이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또 부족한 점은 없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여기 보면 EBS 사장 선임은 방통위가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고 있지만 KBS 사장과 MBC 사장 임명에는 방통위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KBS, 방문진, EBS의 이사들에 대해서만 추천하거나 우리가 임명하는 것이고, 이사장 선임은 그냥 그 이사회에 호선이나 선임에 맡기는 것입니까?

○ 이현 행정법무담당관

- 지금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호선하게 되어 있지요?

○ 이현 행정법무담당관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이사장 선임에 관해서도 방통위가 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만 추천·임명해서 맡기면 거기의 다수파가 그냥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호선하더라도 이사 추천·임명 정신에 따라서 이사장 선임이나 결정과정에 방통위가 최소한 관여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현 행정법무담당관

-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 규정에,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서...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그 법을 고치는 방안에 대해 우리가 연구·검토하자는 뜻입니다. 지금의 현행 법제

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니까 이 의결 안건에 문제는 없겠고, 사무처에서는 그대로 하겠지요. 또 안건 담당 과장에게 의견을 묻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답변에 한계가 있겠지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경영책임기관에 대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닌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지요? 추천 임명하는 것이니까….

○ 이현 행정법무담당관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사장과 사장 선임에 관해서도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답변에 한계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는데, 제 소견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지금 제안해 주신 안에 대해서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삼석 위원님께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원론적인 면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천 또는 임명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외부의 학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재홍 위원님께서 KBS 사장과 MBC 사장, KBS 이사회의 이사장, 그다음에 방문진 이사회의 이사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현행 법률도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원리, 또 주식회사의 구성 및 운영의 원리도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관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언급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국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과 이사장에 대한 선임, 그 방법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가능한 한 방송의 정치적 독립, 언론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 관행과 절차를 거쳐서 지금 합의된 안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통위는 어쨌든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공영방송의 사장을 직접 임명한다거나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에 직접 관여하는 그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법에 그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언론사의 사장을 직접 임명을 한다거나 거기에 직접 관

여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사진을 임명하거나 추천을 하고 난 뒤에 그 역할에 대한 평가를, 또 우리 중앙행정기관에서 사후에 한다는 것조차도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학계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외부에 있는, 중앙권력기관과 상관이 없는, 보다 더 객관적인 조직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앙행정기구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시민사회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에 관해서 많은 토론과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현행 법제는 학계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세계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BBC 방송이나 오스트리아의 공영방송인 ORF의 거버넌스(governance), 즉 경영기관 지배구조를 봤을 때 우리의 KBS, MBC, EBS의 거버넌스는 문제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비록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나마 여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상임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정부 내각에 예속되지 않고 충분한 독립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여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관련 정부부처가 BBC의 트러스트 이사장이나 그 사장에 대해서 임명 과정에 관여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절차가 있지만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신임을 받아 선출된 정부가 일정하게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내각책임제이기 때문에 국회 원내교섭단체와 함께 상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어쨌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훨씬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취지임을 다시 말씀 드리고, 필요하면 외부 학술단체, 연구기관, 시민단체에 연구용역을 쥐서라도 중장기적으로 연구해 나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사무처에서 보고한 임원선임 계획안에 대해서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KBS든 방문진이든 EBS든 임원 선임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과거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온 그런 절차와 방법을 최대한 준용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사장, 그다음에 KBS, MBC의 사장 선임 방법에 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지

난 1년 반여 동안 방송공정성위원회를 별도로 꾸려서 많은 논의를 통해 지금 부분적인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서 일단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도 한번 해 보지 않고, 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상임위원들의 구성이 비록 여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다 이견이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일정과 관련해서...

○ 최성준 위원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붙임 1> 5페이지에 ‘추진 일정(안)’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 상황 등에 따라 변경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업무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휴가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위원회 성격상 업무처리에 지장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일정이 이대로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 이현 행정법무담당관

- 그래서 위원님들의 휴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해서, 현재 KBS, 방문진 이사 선임은 7월 안에 다 마무리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휴가가 다 8월 초 이후에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됐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5-31-15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해 201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 대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이며, 대상사업자는 재허가·재승인 대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및 보도·종합편성·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총 153개 사업자, 348개 방송채널이 되겠습니다. 지상파방송인 TBN 창원이 2013년 8월 신설되어서 하나 추가되고, MBC 강릉·MBC삼척의 경우에는 MBC강원영동으로 2014년 11월 합병했으나, 평가 대상기간인 '14년도 기간 중에 있어서 2개 사업자로 구분하여 선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영역은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내용·편성·운영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 평가하며, 평가배점은 디지털 전환 항목 삭제로 지상파TV 총 배점은 1,000점에서 900점으로 축소되었고, 종편PP는 700점, SO·위성은 550점 등 다른 매체는 2013년도 평가와 동일합니다. 방송평가 영역별 배점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용 평가규칙은 2013년 12월 30일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2014년도 방송실적을 평가하는 금년 평가부터 적용되겠습니다. 2013년도 방송평가 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시청자 사과' 관련 사항이 현재의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동 감점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방송이 심야시간대에 편성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22시부터 07시에 편성된 어린이프로그램은 평가실적에서 제외합니다. 장애인방송 평가척도도 '11년 방송법 개정과 장애인방송 고시 개정에 따라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편성평가' 척도를 고시에서 정한 연도별, 유형별, 비율 목표를 만점으로 9등급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 준수여부 평가 관련 배점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방통위가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등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에 따라 방송법령 준수 관련 배점은 30점에서 40점으로 확대했고, 방송프로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 노력평가 배점은 20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절차입니다. 방송평가는 평가지원단 심사와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방통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먼저 방송평가지원단은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되어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이것을 실제로 평가하고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송평가 규칙에서 정한 방송평가 위원님들께서 평가지원단의 심사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 시 사업자의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송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14년도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심사시 일정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와 국민들의 접근 용이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배너를 활용해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금년 7월부터 방송사업자 자료를 접수하고 8월까지 평가지원단의 제출자료 심사 및 평가를 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난 2014년에 대한 평가는 2013년에 이미 정해진 방송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가 되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2013년 말에 개정된 방송평가 규칙에 따라 실시되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리고 우리가 2014년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이 기본계획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적용이...

○ 김종영 편성평가정책과장

- 지금 심의하시는 이 기본계획은 2014년도에 방송된 것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2014년, 작년 방송실적에 대한...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작년 방송실적에 대한 것입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붙임> 4쪽을 보면 편성영역에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종합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배점이 과거의 배점과 변화가 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13년도 평가와 변함이 없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변함이 없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허원제 부위원장

- 지난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재난방송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입장 이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은 더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방송평가 규칙 개정 시점과 실제 평가 실적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재난방송과 관련된 평가배점을 강화하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 평가규칙을 새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된 사항은 지난번 방송평가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칙에서는 배점을 상향할 수 없고, 평가지원단이나 평가위원들께서 그것을 고려해서 변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난해 세월호에서 올해 또 메르스 사태까지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어서, 재난방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의 수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명확히 인식을 하시고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것은 시행세칙인데 이것을 심의했던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고를 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이 있고 그것에 따른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기본계획 규칙에 근거해서 시행세칙을 만드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이 시행세칙도 기본계획에 거의 그대로 구속을 받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제2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변경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용어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규칙에 근거한 계획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12월 30일에 규칙을 확정해 놓았는데, 저희가 현재 규칙을 개정하면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 규칙에 따라서 지금 이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고..., 규칙이 기본계획 아닙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다시 말씀 드리면 방송법에 따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저희 위원회 규칙입니다. 법, 시행령 다음 규칙에 해당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행령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규칙에 해당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다음에 기본계획이 있고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기본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행세칙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시행세칙은 세부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규정은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 실제 평가하면서...

○ **김재홍 상임위원**

- 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해 놓았지만 시행세칙을 따로 나누어서 본다면 그 정도 점수 배점은 손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말씀 드리면, 평가규칙에 따라서 하되 실제 평가위원들께서 배점을 할 때 변별력을 조금 높이는 방향은 가능하고, 새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여기에 나타난 일종의 대항목과 중항목이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평가할 때 시행세칙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난번 위원회 회의에서는 손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지금 세부평가 항목과 배점은 수정·변경할 수 없고, 실제로 심사평가할 때 평가위원들께서 정성적 평가인 경우에는 배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2013년 말에 개정하거나 의결해 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의결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대로 놓고 시행해도 되는데….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지금 기본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평가 자료를 제출 받는 절차와 시기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그 절차에 관한 것만 의결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재난방송 편성 문제는 작년에 저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상파 TV는 60점인데 종편은 65점, 보도PP는 70점…, 보도PP가 점수가 많은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상파보다 종편이 재난방송을 더 비중 높게 하라, 다른 항목에 비해 훨씬 더 비중 높게 하라,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내용영역에서 심의에 위반된 것 말고 방송콘텐츠에 대한 평가를 채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정성과 사회적 책무에 관한 평가방법이 없습니다. 편성영역에서 편성비율을 그렇게 문제 삼고 계속 지적해 왔지만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위원회 같은 데에서도 그것을 점수에 반영할 항목이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서 지금 바로 제3기인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또 학회 같은 학술단체에 토론회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말에 그런 것이 확정되면 내년에 예고하고 내년 방송분에 대해서 내후년에 시행하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칙과 시행세칙과 배점표를 만들어 놓고 그 해당 위원회가 시행하지

않고 다음 위원회로 넘겨주고 나가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고..., 그것이 합리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입법한 사람이 바로 집행까지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답답한 것은 우리 위원들 거의 대부분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고쳐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반영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같이 심의했지만 그 자리에서 다른 평가위원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안건 4페이지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절차 <표>가 있습니다. 평가지원단 심사,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 읽으면 실무지원단이 실질적인 심사를 해서 자료를 다 만들고, 방송평가위원회는 형식적인 심의를 하고 그것이 전체회의에 올라와서 의결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각 채널별, 각 분야별 방송평가지원단을 구성했는데 그것을 할 때 방송평가위원회와 상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지원단의 심사가 다 완료된 뒤에 방송평가위원회에 한 번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가능하다면 여러 차례 보고해서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 방송평가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서 그 절차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중간 중간에 심사지원단, 실무지원단에서 자료를 만들 때 평가위원회에 가능하다면 자주 보고해서 함께 상의해 나가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한 가지 디지털 전환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지상파의 경우에 지난번 디지털 전환이 완료됨으로 해서 더 이상 평가대상으로서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 평가가 100점으로 배점되어 있었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상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SO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거기도 계속 디지털 전환이 꾸준히 점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SO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평가에 혹시 배점이 되어 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SO와 위성방송은 2015년도 방송실적까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콜센터 운영실적 20점, 디지털 상품 HD 전환 가입률 30점해서 50점을 유지합니다.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13년까지 종료됐고, SO와 위성은 '15년까지 디지털 전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는 또다시...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SO에 대해서 내년까지, 올해 방송 실적분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케이블TV는 아직도 아날로그 케이블TV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 디지털전환 실적을 내년까지 평가해서..., 대부분 '15년을 거의 완료시점으로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완료시점을 '15년으로 봤기 때문에 평가를 그때 실적까지 하겠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런데 지금 추진 속도로 보면 아직도 한 50% 정도 됐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저희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50~60% 이상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날로그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케이블TV에 8VSB를 허용해서, QAM 신호 말고 8VSB 신호로 해서 디지털로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어쨌든 그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평가지수도 조금은 강화를 시킨다든지 해서, SO 쪽도 디지털 전환 기술 발전 추세에 순응해서 발맞추어 나가는 것을 스피드업(speed-up)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받은 이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업무 소관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인사 논란 여운이 채 가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단의 경영기획실장 채용 인사를 놓고 또 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언론이 '현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모 인사가 재단 경영기획 실장에 내정되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보도내용 확인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인사는 2004년에 모 정당에 입당해서 부대변인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공보단 위원으로 활동했고, 현 정부 출범 후에 청와대 춘추관과 대변인실 행정관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전에 기자생활을 한 10여년 했어요. 그리고 최근 10여년 동안 정치권에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언론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정치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잠깐만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김재영 국장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저희는 공모 진행과 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재단에서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방통위 회의에서 이렇게 논의 내지는 질의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또 김재영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한 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11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보고에서 이사장이 위원들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사 문제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재영 국장이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답변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 입장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다면 그 전에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것과 무관하게 이분을 정치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무엇보다도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이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3배수 후보자로 압축되어서 오늘 면접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면접 보고 아마 오늘 바로 경영기획실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분을 염두에 두고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정치권에 있었고, 직전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분을 서류심사를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이런 인사가 재단설립 목적에 어떻게 부합합니까? 이분이 미디어교육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시청자 지원 관련 업무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경영전문가입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가지입니다. 첫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지난 6월 11일에 논란 끝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석우 이사장이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석우 이사장이 했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과 미디어의 공정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소홀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 위원님들의 우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늘 유념해서 매사를 공정하게 하겠다. 걱정이나 우려를 끼쳐 드리지 않겠다. 공정성·형평성, 정치적 독립성 이 부분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지켜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약속을 믿어도 되겠느냐?”고 두 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짐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저는 거듭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사장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예, 그

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 드렸듯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정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사장이 위원 전체 앞에서 했던 약속, 다짐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정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인사가 실제로 그 자리에 결정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이사장 사퇴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런 인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했던 말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제 입장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현재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인사가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재단 운영의 파행까지 각오하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간단히….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히 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고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기사를 아침에 보긴 봤는데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아시는 것입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보도됐지 않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재단에서 직제나 인사규정이나 채용기준에 따라서 공고를 내고, 그리고 직원 채용을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지원을 하고, 누가 서류심사를 통과하고, 누가 내정이 됐고 이런 것을 저는 전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채용과정은 제가 알기로는 규정상 다 끝날 때까지 보안사항인데 어떻게 특정인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이런 것부터가 저는 좀….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지금 그 내막을 여기에서 한 번 다 말씀을 드릴까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첫째 그것을 문제제기하고, 두 번째는 아까 이사장이 여기에 나와서 ‘앞으로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재단에 규정이 다 있고, 채용공고를 어떻게 하겠다는 공고된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이사장이 그것과 다르게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원장님의 재단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걱정되는 것은 재단에서 루틴(routine)하게 이루어지는 일과 관련해서, 이사장이 여기

에 나와서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원칙적으로 천명한 내용과 그것을 자꾸 결부시켜서 '그렇지 못하다, 거기에 부합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어떻게 산하기관에서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회계집행을 했는지, 인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감사기능이라는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하는 게 좋겠는지, 어떤 지자체나 기업과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런 큰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말씀 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기주 위원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규정과 절차만 지키면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 정당화됩니까? 저는 그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재단 관계자가 들어가 있고 또 재단에서 추천한 인사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니까?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사장의 의중이 다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사장이 공정한 관리자로서 책무를 다 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포기했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징후는 그러한 공정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주 위원님께서서는 나중에 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인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문제제기하면 "규정대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인사가 결정됐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며 자격에 결격사유만 없다면 별별 사람들, 다 자격이 안 되어도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평소에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하신데 왜 이런 문제만 나오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쪽을 두둔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입장과 생각에 따라서 상황을 보는 의견이라고 할까, 논리가 전혀 다르고,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서는 이것은 완전히 맞지 않는 논리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을 선임할 때 가장 큰 논란은 정치 성향이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이 깨진다,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문제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관련자들에게 사과도 해야 한다고 해서 사과는 본인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와 절차를 보면, 처음에 이사장을 임명할 때 정치 성향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했지만 어떻게 절차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성향이 많다고 지적된 이사장이 주도해서 내부 고위간부들을 공모하는 절차를 만들었는지, 외부

심사위원을 어떻게 초빙했는지 해서, 심사위원회가 있고 규정·절차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관료적이라고 할까, 실무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고 결과는 뻔히, 밖에서는 '벌써 내정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저로서는 '많은 지적을 받았던, 비판을 받았던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하는 판단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는 이야기를 저도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봤고 취재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지휘부를 전부 다 일색으로..., 정부 여당을 선거과정에서 도와주었거나 SNS 댓글을 통해서 지지했거나 문제가 많았던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에 대해서까지 지지를 표명했던 이사장을 그대로 임명했고 그 이사장이 주도해서 경영기획실장을 이렇게 공모 절차를 밟아서 또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감독권과 그 운영의 심결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든 언론이 다 지적했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날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랬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무슨 정치 성향이냐 이념 성향과 관련이 있느냐"까지 이야기했지요?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면 이것이 무슨 정치단체냐, 무슨 이념 성향이 있는 단체냐,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그 이사장이 정치 성향이 있는 사람, 경영기획실장이 그런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공보단 단원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넣으면 그 단체는 우리의 산하기관인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듯이 우리의 지휘를 받는, 우리의 감독을 받는 그런 산하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이 깨진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예상컨대, 그때도 걱정을 말씀 드린 것이지만, 전국에 5개 권역의 광역도시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재단은 그 센터를 지휘하는 지휘부입니다. 아닌 말로 이 중앙재단의 지휘부를 어떤 정파에 관여했던 분들 일색으로 전부 임명을 해 놓으면 전국 5개 권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선거운동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을 접하면서 시민단체들이 한 500~600만원, 700만원씩 연간 활동비 예산을 신청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판적인 단체, 진보적인 단체는 다 배제하고, 그렇게 일색으로 만들어가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또는 일색으로 끌여가고..., 그런 일을 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저는 처음부터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우리의 대국민 접점입니다. 미디어교육, 시민단체 지원활동, 시민들의 참여를 현장에서 지원하고 교육시키는 단체인데, 거기에 정치성향,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 활동했던 그런 분을 경영기획실장으로..., 이사장 때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리고 또 그 아래에 국장인지 하는 분들을 임명해 가면서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독권과 심결권은 뭐가 되는 것이며..., 그런 관료적인 절차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크게 틀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경영기획실장에 지금 문제된 그런 인물을 선정한다면 이사장에 대한 정치성향, 과거 정치활동, 댓글활동의 문제에서부터 그 경영기획실장 후보의 문제까지 묶어서 재론해야 하고 엮어서 다시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서 그 해당 직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분

이 임명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 허원제 부위원장

- 우리 산하기관의 내부적인 인사 문제에 관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사실 아직 아무런 구체적인 결정 사항이, 실체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의도를 가진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우리 발언내용에 지나치게 정치적인 색깔을,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윤색을 시켜서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한 분 한 분은 다 나름대로 추천과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하기관이 예를 들어서 자기를 내부적인 인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그 산하기관 내부의 인사 절차와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가 그렇게까지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는 정말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이 미디어센터, 미디어재단이라는 것의 임무나 그 소관사항의 업무가 정치적 색깔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시민단체를 거론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실체가 있는지, 제가 미디어재단을 잘 모르고, 또 미디어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디어재단과 미디어센터가 하는 일과 역할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의 그런 일을 하는 단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미디어재단과 미디어센터를 그런 쪽으로 윤색을 시켜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미디어재단의 역할이라는 것은 시청자에 대한 미디어교육,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미디어 지원 업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디어재단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다 생각과 평가가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 이렇게 너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원색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김재홍 위원장

- 제가 끝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들끼리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깐 간단히 마무리하시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근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굉장히 유감을 느꼈는데, 너무 정상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런 이사장의 임명이었고, 경영기획실장이 3배수에 들어와 있고..., 왜냐하면 그 결과를 봐야겠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문제가 예상되면 뒤따라가면서 소리칠 것

이 아니라 앞에서 막고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함으로써 해서 그런 분을 내정했다가 취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금 정규업무가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시는데 그것은 매우 정상적인 활동이고 정상적인 기구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를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그 지휘부가 합니까. 그 지휘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휘부에 정치 성향이 강한, 특정 정파 활동을 했던 분이 더군다나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분이 들어간다면 그 기구의 업무는 그렇게 되어간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까 시민단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미 두 군데 지방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해서 또 그 협력단체, 문화부 산하단체까지 방문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다양한 작은 시민단체들이 그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연간 활동 예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수백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을 심사할 때 전국 5개 권역에 나누어져 있는 센터가 지휘부의 특정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어느 시민단체에는 지원하고 어디는 안한다면 전국의 시민단체의 그 활동 방향이라고 할까, 색깔이라고 할까, 일색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업무과약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립과 독립성을 깨는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것은 아니지요. 어떤 쪽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처방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입장이 담겨 있든 안 담겨 있든 그것에 대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사 인선 결과를 봐야겠지만 오늘 저의 이 강한 어조의 지적, 문제제기가 정말 유효하게 작용해서 그런 인선이 안 되기를 바라고, 거듭 말씀 드리지만 여러 번 봤지만, 어느 이사장 할 때도 봤고, 그렇게 돌파해서 결정이 되면 야권 추천 상임위원 둘이 퇴장한 뒤에도 다 결정했고, 그 뒤에 아무리 소리쳐 보고 비판해 봐야 그냥 말로 끝나고 만다는 점에서 미리 앞당겨서라고 할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앞에서 막고 예방하는 길이 상책이다, 그냥 파괴행위가 아니라 그냥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적 구성이라고 할까, 또 앞으로 활동방향도 매우 걱정되는데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전달되어서 많은 수정이 가해지고 다시 검토돼서 올바른 방향으로 들어가기를 거듭 바랍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 입장을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기본 입장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사에 관한 면접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야기는 다시 전에 했던 것, 시청자미디어센터 성격에서부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님들 간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발언하시는 것은 좋은

데 가능하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정치 색깔이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 드렸던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16호 시청자미디어센터, 즉 재단까지 포함이지요.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에 근거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습니다. 그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렸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왜 인사 결과를 이야기하지 지금 결과도 안 나왔는데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미 이사장 인사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내정설이 나오고,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계속해서 기정사실화해서 어떠한 조치도 못 하고, 이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제적인 감독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강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사에 있어서의 ‘정파성’, 그리고 그 인사들이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의 ‘불균형성’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 그 자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저는 옳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기주 위원님도 간단히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가능하면 소위 정치적 중립·독립 이런 본래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발언을 자제하고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미디어재단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나치게 편 가르기 식의 발언이나 용어가 이렇게 나온 것을 듣고 있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어떤, 편 가르기, 어느 한쪽에 치우친 쪽으로 그렇게 모습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운합니다. 지금 어느 한 쪽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벌써 그렇게 편 가르기 식의 용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듣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도 우리 산하기관의 인사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수용을 안 하실지 모르겠으나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우리의 심결사항이라는 것에 인사상의 문제가 거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의 유권해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벗어나서 그 내부에 또 다른 인사 문제입니다. 내부의 인사 문제는 내부의 절차,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결격사유에 준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미리 어떤 예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의 표현이나 그런 의사 발언의

수위 부분에 관해서 서로 예의를 지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세 마디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생각하시기에, 생각에 따라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에 따라서... 그런데 걱정 정도가 아니고 지나치게 비약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사무처에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과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어떤 것을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의결을 할 것인지 하는 그 부분을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여기에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기타 안전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위원장님도 생각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개된 전체회의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 예를 들어 산하기관 같으면 어느 특정 위원님이 그 책임자에게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걱정이 든다.',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이나 담당 국·과장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전체회의에서 갑론을박해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그 사안에 따라서 아주 부적절한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도 드릴 말씀은 많습시다만 지금 계속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3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52분 폐회 】